



# 세계수의학교육의 수준과 일본에서의 수의학교육개선

## (Level of World Veterinary Education and Reform of Japanese Veterinary Schools)

대한수의사  
협회

일본전국수의학관계대학대표자협의회회장 (President of The Japanese Association of Veterinary Educationists)	동경대학교수 (Professor of The University of Tokyo) 唐木 英明 (Hideaki Karaki, DVM, Ph.D.)
--	---

### 일본의 수의학교육의 현황

현재 일본에서 수의학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대학이 16개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10개 대학, 공립대학은 1개, 사립대학은 5개로 수의학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입학정원은 약 1000명, 그 가운데서 약 400명이 국공립 대학, 약600명이 사립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학에 있어서 수의학교육의 현황을 보면 모든 대학이 문부성의 대학설치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설치기준을 통해 대학이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한도의 시설, 설비, 교원수 등을 문부성이 정한 것입니다. 수의학에 관해서는 독자적인 기준은 없고, 농학부의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학부 기준도 농학부 기준과 일치합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2학과 이상으로 학부를 조직하는 경우는

학생의 수용정원이 160 명에서 320명의 경우에는 강사이상의 전임교원이 8명이 필요하고, 그 반수 4명 이상은 교수여야 합니다. 이것을 수의학에 적용하면, 6년제 교육으로서 1학년의 학생수가 30명에서 50명이면, 8명의 교원이 있고, 그 가운데 4명 이상이 교수면 좋을 것입니다.

문부성대학설치기준 별표 1 학부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 전임교원수

학부종류	1학과로 조직		2학과이상으로 조직된 1학과	
	수용정원	전임교원수*	수용정원	전임교원수
농학관계	200-400	14	160-320	8
약학관계	200-400	14	160-320	8
의학관계	480 140		720	140
치학관계	480 99		720	85

\* 전임강사이상, 반수이상은 교수  
(수의학은 농학관계에 포함되지만, 특례로서 이것의 2배수가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모든 대학이 부합되고 있습니다. 수의학과 졸업생은 農林水産省이 감독하는 수의사국가고시를 수험하고, 반드시 합격하여야 하지만 그 합격률은 90% 이상, 대학에 있어서는 100%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대학에서도 수의학과는 인기가 있고, 지원자수는 입학정원을 훨씬 넘고, 편차 치가 높은 우수한 학생이 모집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수의학과는 언뜻 보기에는 아주 양호한 교육환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일본 수의학 교육을 아주 불만족으로 생각하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의학 교육관계자의 불만의 이유를 말씀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8년에 수의사법이 개정되고, 그때까지의 4년 교육이 6년제 교육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경의 주요한 이유는 임상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상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많은 교원이 필요합니다. 문부성은 수의학과에 한하여 대학설치기준의 배수의 교원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1학과의 교수가 8명, 교원전체는 16명으로 충분한 교육에는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는 수 없이 대학은 6년제 교육시설 전의 학부 4년+석사 2년으로 거의 변경되지 않은 교육을 지속하였고 기초교육과 졸업논문의 작성을 중심으로 curriculum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졸업생을 받은 사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임상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기초과목에 관해서도 사회로부터 학력저하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수의학 담당교원 전원의 인식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고 졸업하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제일 첫째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 교육관계자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수의학교육의 이념을 재구축하고, 교육 방법과 교원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신의 점검, 자신의 평가를 실행하여 그 결과를 교육에 피드백(feed back)하는 노력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일본의 수의학교육 체계에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원수가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도 부족하다 것입니다.

각 대학의 교수 수를 봅시다. 국립대학 10개 대학 안에 岩手, 岐阜, 宮崎, 鹿兒島의 4개 대학의 수의학과는 교수가 9명, 帶廣, 農工, 鳥取, 山口의 4개 대학에는 10명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학은 모두 전쟁 후에 나온 새로운 대학입니다. 이에 비하여 같은 국립대학에도 전쟁 전부터 있던 북해도대학과 동경대학에는 교수는 16에서 17명이 있습니다. 또한, 공립대학인 오사카부립대학의 교수는 15명입니다. 국공립대학의 학생수는 1학년 30-40명으로 거의 같습니다.

사립대학은 1학년의 학생수가 80명에서 120이고, 17명에서 26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같은 국립대학에서도, 학생수가 같은데 2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은, 이러한 대학에서의 교육의 내용이

같은지? 수의학교육에 필요한 교수수는 몇 명인지? 왜 이와 같은 큰 차이가 있는지? 등의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의학교육에는 몇 명의 교수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교수가 몇 명 필요한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수의학과에 어떠한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에는 과목의 이름과 강좌의 이름이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일본의 수의과대학에 있는 모든 강좌수는 26종류가 있습니다. 각 강좌에는 교수가 1명씩 있습니다. 그중, 수의학교육에 필요한 과목(강좌)은 어떤 것인지를 말한다면, 수의사국가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다음의 17개 과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내과학, 외과학, 약리학, 미생물학, 공중위생학, 임상변식학, 실험동물학, 방사선학, 위생학, 생화학, 기생충병학, 전염병학, 독성학, 어병학 등 17강좌(과목)입니다. 그러나, 국립대학가운데서, 8개의 수의학과에는 9-10개 강좌밖에 없기 때문에, 교수도 9-10명밖에 없습니다. 9-10명의 교수가 최저 17과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한 명의 교수가 2과목을 할당 하든가, 타 대학으로부터 강사를 초청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를 들면 내과학과 외과학 등은 교수 한 명으로 가르칠 수 없기때문에, 의학부에서는 여러 명의 교수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문부성의 대학설치기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농학부의 경우, 전임교원이 8명, 그 반수인

4명의 교수가 필요하고, 다만 수의학과는 그 배수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대학 설치 기준입니다. 하지만 의학관계, 치학관계를 보면, 전임교원수는 의학부에서는 140, 치학부에서는 85, 그의 반수가 교수이기에 의학부는 교수가 7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치학부에서도 43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큰 차이가 있는지는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다음에 유럽의 예를 보기로 합니다.

### 유럽 수의학교육의 현황

EU에서는 1999년 1월에 통화를 통합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질적인 국경이 사라지고 식료나 축산제품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 업무는 주로 수의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EU국민의식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각국의 수의사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EU는 “수의학교육 확립을 위한 유럽연맹”(EAEVE : European Association of Establishments for Veterinary Education)을 설치하고, 수년간 EU 지역내의 모든 수의과대학을 점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시설, 설비, 교원수, 교육과정(curriculum)을 평가하고 이에 합격한 대학의 졸업생만이 EU전역에서 수의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불합격의 대학 졸업생은 그 나라 안에서만 수의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1999년 말에 종료되었고, 대부분의

대학은 현재까지 진행한 교육이 높은 평가를 받아서 합격되었다.

EU 의 기관으로서 (ACVT : Advisory Committee on Veterinary Training) EU지역 내에 있어서 수의학교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5년간의 수의학교육을 진행하고 학생은 각 학년에 평균 100명이 재직하는 경우

- 1) 교원총수는 100명 이상으로서 학생 : 교원의 비례는 5:1이하, 즉 1명의 교원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5명 이하로 하는 것.
- 2) 기술직원 : 교원 비는 2:1이상으로 교원 2배의 기술직원이 설치되어 있는 것 (다만 이 비율은 반드시 필수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고 1:1 정도의 대학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벨기에의 Ghent대학은 EU에서는 중간 규모의 대학입니다. 벨기에는 일본과 시스템이 다르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일정한 성적에 도달한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수의학부는 인기가 있고 매년 약 500명의 학생이 입학합니다. 그러나 진급시험은 엄격하고 2학년생으로 진급할 때에는 학생수는 약 120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요약하면 여기에서 입학시험이 진행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의 수는 150명, 이것을 보좌하는 기술직원이 150명입니다. 이 수의학부는 EU에서 표준이 높은 것은 물론 EU의 점검평가에도 합격하고 있습니다.

EU 지역 내에서 가장 큰 수의학부는 Munich 대학입니다. 역시 입학시의 학생수는 약 500명, 진학시험에서 학생수는 감소하고, 졸업시에는

약 230명으로 됩니다. 교원수는 280명이고 기술직원이 350명입니다. 이 수의학부도 물론 합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2개의 대학이 불합격되어 있는데 그것은 스위스의 베른대학과 추리히 대학의 수의학부입니다. 베른대학 수의학부의 학생수는 입학시 60명이지만 진급시험이 엄격하여 도중에서 학생이 퇴학하기 때문에 졸업시에는 학생수가 약 45명 정도로 감소합니다. 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수는 약 60명, 그 가운데에 교수가 27명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술직원이 약 50명입니다. 이 베른대학은 EU의 점검평가에서 불합격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과정은 이론교육에 편중하고, 實地교육이 부족하며
2. 전임상 교과목의 얼마간은 의학부에 의하여 교육되고 있지만 그 때문에 특히 생리학 등에 관해서는 수의학에 적용된 교육내용으로 되어 있지 않고
3. 스위스에서의 대학시험은 모두 국가시험이지만 이 시험제도가 융통성이 결핍되고 너무 낡아있다.
4. 수의학부는 강좌(institute)제를 취하고 많은 강좌가 있지만 교육, 연구의 효율화를 가늠하기 위하여 그 수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5. 마지막으로 베른대학의 최대의 문제점은 규모가 작은 것이다. 그 규모는 수의학교육의 전체를 cover하기 위한 최저기준 (EAEVE기준) 보다 작다.

이 지적을 받고 추리히와 베른의 양주 정부는 두 대학의 재편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미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국경은 있지만 식품이나 축산 제품의 유통은 거의 자유화이고 따라서 EU의 동일한 사정에 의하여 양국은 수의학교육수준의 균질화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 설치된 accreditation 협회가 정기적으로 양국의 수의과대학의 점검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점검항목은 EU와 거의 같습니다. 이 점검에 합격한 대학의 졸업생에는 수의사의 자격을 수여하고 미국과 캐나다 양국에서 수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검에 합격한 대학을 소개합니다.

우선 미국 미주리대학 수의학부는 미국에서는 평균적으로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전문교육은 4년이지만 타 대학의 생물학부 등에 의하여 수의학의 기초교육을 종료한 학생만이 수의학부의 수험자격이 있습니다. 미주리대학 수의학부에서의 학생수는 한 학년에 60명으로, 4학년의 총수는 240명이 됩니다. 이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의 수는 118명, 이 가운데에 교수가 22명입니다. 기타 약 190명의 기술직원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게루후온타리오대학 수의학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생수는 1학년이 약 100명, 4학년의 총수는 약 400명이고, 교원수는 101명, 기술직원은 60명입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도 교원수가 100명 이상이라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국립대학에서는 20여명의 교원으로 수의학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최저 100명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왜 유럽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교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계수의사연맹 (World Veterinary Association : WVA)이 정한 “수의교육의 필요최저조건”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아래의 과목을 반드시 교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놓았습니다.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포유류 및 조류를 포함), 생화학, 약리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병리학, 동물번식학, 질병진단, 치료, 예방학, 내과학, 외과학, 방사선학, 면역학, 공중위생 (도축검사·식품위생), 집단수의의료, 역학, 수의사를 위한 경제학, 동물관리 및 생산(유전학), 식물학, 세포생물학, 환경과학, 수의논리, 동물복지 등입니다

이들 과목을 교수하기 위해서 1과목에 최저 1강좌, 교수 1명, 조교수1명, 조수2-3명 합계 4-5명이 필요하고 따라서 교원총수는 100명 이상으로 됩니다.

## 일본수의학교육개선의 방향

일본수의학과는 학생정원이 1학년 30명에서 40명으로 적기 때문에 교원수가 적어도 좋다는 의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논은 잘못된 것이고, 아주 광범위한 범위의 수 의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최저 100명의 교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반대로, 학생:교원의 적절한 비율을 생각하면 일본의 수 의학과는 학생수가 너무 적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accreditation기관과 같은 기능을 가진 일본대학 기준협회는 의학부, 치학부의 교원수나 유럽



수의학교육기관의 교원수를 생각하여 수의학의 경우 교원은 적어도 72명, 그 가운데 교수는 18명을 요망한다고 하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비하여 실정을 말하면 대부분 대학에서는 교원총수가 25명 정도, 교수는 10명 이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문제점이라면 국가 시험에 출제되는 17개 과목을 충분히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임상, 공중위생의 실지교육은 되지 않습니다.

즉 대학의 使命으로서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인재의 양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졸업생의 질에 있어서 사회가 큰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후 수의학 지방학생의 감소,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의 저하, 그리고 국제적인 평가의 저하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그 답변은 사회적인 요청에 대응될 수 있는 수의학교육을 하고 싶은 그 한마디 뿐입니다. 더 상세히 말하여 첫째로 최저한도의 국가시험과목을 교수할 수 있는 강좌가 요구되고, 둘째로 국립대학내 8개 대학에는 대학원이 없고 4개 대학씩 연합대학원을 만들고 있지만 각 대학에 대학원이 요구되며, 셋째로 전문교육이 가능한 설비시설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의 수의학교육개선운동이 실패한 이유

이와 같은 개혁의 시도는 지금까지 되풀이하여 실행해 보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에 그 이유를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의학교육을 유럽의 수준에 접근시키는 시도가 실패한 원인의 하나는 축산의 역사가 다른데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有史 이전부터 인간과 동물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고, 축산업도 융성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유육위생을 담당하는 수의사의 중요성이 사회로부터 인지되었고 수의학교육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원조가 생겨났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에는 명치시대이전은 축산업이 없었습니다. 명치에 들어서서 군마관리 때문에 수의학교육이 시작되었고 전쟁후의 수의학의 목적은 축산진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산업은 不振되고 그 때문에 수의학교육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동물애호의 정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동물과의 공동생활 속에서 동물 권리를 중시하는 생각이 생겨났고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을 통하여 사람의 QOL(Quality of Life)에 직접 관계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에서는 동물은 차별대상이고 동물을 취급하는 사람도 또한 차별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 속에서 수의사는 사람의 QOL와는 무관계의 존재라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전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 후 점령군총사령부(GHQ)는 의학, 치학과 함께 수의학에도 6년제 교육과 학부설치를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퇴역한 수의사가 거리에 넘쳐 났고 생활난 때문에 수의업은 부진하였고, 수의사의 사회적 지위도 낮아 수의학은 학생에게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권고를 받은 대학은 수의학의

장래에 전망하지 않았고 6년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해도대학만이 1952년에 수의학부를 설치하였지만 동경대학은 거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크게 변한 것은 최근 20년입니다. 그것은 동물에 대한 사회의 사고 방식이 크게 변한 때로부터입니다.

첫째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리어 인간의 즐거움 상대로 된 동물이 현재는 “반려동물”이라고 불리어 우고 인간과 대등한 친구 혹은 가족으로서 인간의 마음의 안정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되었고 그 건강을 보전 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로 축산제품의 소비량의 증가와 해외로부터의 수입의 증가에 있어서 우유나 육류등 축산식품의 위생상태를 검사하고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의사의 일이 점점 중요하게 되어 졌다는 것,

셋째로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 면에서 수의사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

넷째로 동물제품의 유효한 이용을 목표로 하여 생명공학의 새로운 기술을 응용한 연구 담당자로서 수의사에 대한 기대 등입니다.

이와 같은 수의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커지면, 이것에 대응하여 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을 충실히 할 것이 필요 됩니다.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대응이 실행되어 왔습니다. 우선, 1978년에 6년제의 수의학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학부설치, 최저 14개 강좌”를 목적으로 국공립대학 수의학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983년에는 문부성은 수의학과에 특례로서 대학설치기준의 2배의 교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 87년에 걸쳐서 문부성과 국공립대학 수의학협회가 하나로 되어 수의학과 재편정비운동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편정비운동은 실패하였습니다.

재편정비운동이 실패한 원인은 총론찬성, 각론 반대였습니다. “나의 대학에 오면 대찬성. 너의 대학에 가는 것은 싫다”고 말하는 것으로 이 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즉 교원이 수의학의 장래에는 전망을 갖지 않고 빈곤한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수의학 교육의 개혁으로부터 자신의 대학의 존속을 중시한 것, 둘째로 타 학과, 대학, 지역을 설득하고 협력을 얻는 것이 부족하였다는 것, 셋째로 학생수가 한 학년에 30-40명으로 적기 때문에 대학설치기준의 2배 이상의 교원수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 넷째로 각지의 정치가는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수의학과 재편성을 반대하였다는 등 요인에 의하여 1987년에 재편운동은 중단되었습니다.

## 새로운 교육개선의 방향

그러면, 이와 같이 1번 실패한 수의학교육의 개선은 어떻게 하면 가능해 질 것인지?

개선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부성에 교원수를 증가하여 달라고 청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생의 입학정원을 늘리는 데 의하여 교원수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재 있는 선생을 모집하여 scale merit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교원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공무원의 정원감소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1,143,000 명의 공무원이 있지만 이 수를 25% 감소하는 것이 현재의 내각의 방침입니다. 그러므로 교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리하여 첫 번째의 방법은 불가능하지만 다음의 두 번째 방법으로 학생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가족의 두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수의사의 수가 그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심각한 문제는 소자화(少子化)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정시에는 220만 명이 있는 소학교의 입학자수가 현재는 120만 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 번째 방법으로 현재 있는 교원을 모집하여 scale merit를 시도하고 재편정비를 다시 한번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0개 학교가 있는 국립대학 수의학과를 5개 대학에 재편정비하는 것입니다. 전회의 운동의 실패교훈을 살리고 지역적인 배치를 고려하여 대학원대학을 목표로 하는 원칙에 의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북해도대학, 동북대학, 동경대학, 규슈대학에 새로운 수의학과를 설치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학 교육개혁의 time limit는 언제가 될지? 이에 관하여 현재위치에서 한 사람의 교원이 2과목, 3과목을 가르치거나 이웃대학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불備를 보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학생교육을 생각하면 time limit는 곧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립대학을 2003년에는 독립법인으로 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의 엄격한 품질보증시스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은 자신의 평가를 실시하고 외부평가를 받고, 독립행정법인으로 되면 중기계획을 세워 승인을 받고, 5년 후에는 중기평가를 받습니다.

대학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고, 수험생에 의한 선택과 졸업생을 받아들인 사회로부터 엄격한 평가를 받습니다. 수의학에 관하여 국가시험도 품질보증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상황을 살아나가기 위하여 우리들은 하루 빨리 수의학교육의 개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수의학교육개선운동에 대하여 약 4000만 엔의 문부성과학 연구비 기반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되어있지만 보시면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http://jvm2.vma.autokyo.ac.jp/kaken/HOME.HTM>

이상입니다. 